

Dear Beloved Sisters and Brothers,

Greetings in the name and hope of Jesus Christ! Happy New Year! We Christians experience many opportunities for new beginnings. As we enter into 2015, this temporal, secular new year is one of those occasions. We can use this launch of a new year to reflect on the year that has ended and to make resolutions and intentions for the next twelve months. It is a time to prayerfully ask the question, "What is God's yearning for me, for us in the year to come?"

There are other times of new beginnings as well. Each year I experience Eastertide as a time of celebration of the resurrection of Christ and the possibilities of being open to resurrection and renewal in all of life. The powerful message of the cross is that indeed nothing can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in Christ Jesus and that even unspeakably challenging circumstances can be transformed.

For United Methodists July 1 brings yet another new beginning. At this traditional pastoral appointment beginning time, we are reminded that indeed a new year begins. Whether it is a continuing appointment or a new appointment, this date provides the occasion for pastor and congregation to recommit to serving Christ together.

And another "new year" happens at the beginning of the school year when churches often celebrate "homecoming" with the return of church school, youth groups, Disciple Bible study and other small groups as well as full church programming. This secular time offers to the church yet another new

And perhaps the most authentic new year for the church is Advent, the new beginning of the Christian year during which we begin a year-long remembrance in our liturgy of the gospel story and the mission of the church.

As you contemplate the "new beginnings" in your own life and in the life of the church, there may be no better way to be reminded of what it means to be a faithful servant of God than John Wesley's Covenant Prayer:

I am no longer my own, but yours.

Put me to what you will, rank me with whom you will;

put me to doing, put me to suffering;

let me be employed for you, or laid aside for you,

exalted for you, or brought low for you;

let me be full,

let me be empty,

let me have all things,

let me have nothing:

I freely and wholeheartedly yield all things

to your pleasure and disposal.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께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리며, 행복한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출발의 기회를 자주 경험합니다. 2015 년을 시작 역시, 현실의 세상에서 맞이하는 새해는 그런 경우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고, 다시 새해의 시작하면서 새해의 열두달 동안의 결심과 계획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나와, 그리고 이 시기에 우리는 새로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원하시는 뜻을 기도로서 간청합니다.,

새로운 출발은 다른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저는 매년, 부활절을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리는데 때로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경험은 모든 다른 생명들에게도 열려져 있음을 경험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의 말씀은 확실히,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며,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어려운 환경조차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연합감리교회 교인들에게 7월1일은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 이 전통적인 목회파송이 시작되는 때, 우리는 정말로 새해가 시작되는 구나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임지에 계속 머물도록 파송받건, 혹은 새로운 임지로 파송을 받건, 이 날짜는, 목회자와 회중에게, 함께 그리스도를 섬기는 새로운 다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새해의 시작은, 교회들이 흠커밍을 축하하게 될 때인데, 교회학교와 젊은이 그룹과, 제자성경공부반과 속회와 더불어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입니다. 이러한 세상적 시간에 교회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교회안에서 가장 확실한 새 해는, 아마도 강림절, 즉 그리스도인의 새해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간중, 우리는 예배에서 일년동안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기와 교회선교를 염두에 둡니다..

여러분 자신과 교회생활에서 새로운 시작을 진지하게 고려할 때,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도록 그 의미를 상기시켜 주는 것은 요한웨슬리의 언약기도 이상 더 나은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이상 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께서 뜻하시는 곳에 저를 두시되, 주께서 원하시는 이들과 함께 있게 하소서.

제게 일을 주시거나, 고통을 주셔도 좋습니다.

자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 고용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내려놓게도 하소서.

주를 위해 높이고, 주를 위해 낮추소서

저로 하여금 충만케 하시고, 비우게도 하소서

저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은 자가 되게 하소서.

저에게 자유함과 전적인 마음으로

주의 기쁨과 주의 재량에 복종케 하소서.

And now, glorious and blessed God,  
Father, Son and Holy Spirit,  
you are mine and I am yours. So be it.  
And the covenant now made on earth, let it be ratified in  
heaven.

Amen.

God calls us to be partners with the Holy Spirit in being  
Christ's presence to serve a troubled world. As we address  
such issues of poverty, integrity, disease, justice, inclusiveness  
and care for creation, may this powerful prayer guide your life  
in this and in every period of new beginnings.

In Christ's love,  
Jane Allen Middleton

영광과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맺어진 언약이, 하늘에서 이루어지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현존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반자가 되어 죄악의 세상을 섬기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가난과, 성실과, 질병과 정의와 포용과  
창조물의 돌봄에 대해 말할 때, 이 능력있는 기도가 현재와,  
그리고 모든 새출발의 시기에 여러분의 삶에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제인 알렌 미들튼